

A Study on Classical Costume Appearing in the Paintings of Lawrence Alma-Tadema

Kim, Eun-Ha* · Chung, Heungsook Grace
Ph.D. Dept. of Home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Chung-Ang University

Classicism refers to unique styles found in culture and art in the Greek and Roman period. Classicism has revived periodically and inspired philosophy and art.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classical costume appearing in the paintings of Lawrence Alma-Tadema, a 19th-century painter.

The works of the author who has much interest in archaeology are known to have been ascertained from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So, this research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gain close access to the costumes of the Roman times, and is significant in highlighting again the classicism reemerging in the 19th century.

His paintings are characterized by women in Ionic chiton or Himation expressing feminine beauty very well with natural drapery.

The classical modes of the Greek and Roman times have been periodically appeared on the stage in the ages of Romanesque, Renaissance, the 18th century, the 19th century, and even in the modern times, laying the foundation for providing the human race with psychological stability and artistic inspirations.

The memories of ancient people have been revived in the realities and times of their posterity in various colors, and the revived ancient times are always accompanied by a kind of romance. It is because our yearning for the ancient days are at all times concomitant with affection and attachment.

Above all, his paintings are counted as precious resources to manifest the longing and yearning for classicism in the 19th century.

알마 타데마(Lawrence Alma-Tadema) 회화에 나타난 고전주의 복식 분석

김은하* · 정홍숙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고전주의(Classicism)이라 하면 그리스·로마 시대가 연상되는데 그리스·로마(Greece·Rome)의 고전적인 양식은 시대를 넘어서 로마네스크(Romanesque), 르네상스(Renaissance) 시대, 18세기 말~19세기 전반기, 그리고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등장하여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대를 돌아보려는 취미상의 풍조가 전사회적으로 팽배하였던 19세기, 특히 고대에 대한 동경이 강했던 영국에서 활동하였던 화가 알마 타데마(Alma-Tadema)의 작품에 등장하는 의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의 작품은 시대 고증을 엄밀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연구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복식을 상세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19세기에 다시 등장한 고전주의에 대한 의미를 다시 조명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19세기 네덜란드 화가였던 알마 타데마(Lawrence Alma-Tadema, 1836~1912)는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적 감수성을 잘 표현해 내며 활동하였으며 화려한 색채, 탁월한 사실표현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이집트의 역사적 장면이나 풍속 등 고전적인 것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즐겨 그렸다.

알마 타데마의 작품에 등장하는 고전시대 여성들의 복식은 여러 개의 핀과 단추가 달리고 허리 끈을 착용한 이오니아 키톤(Ionic Chiton)과 자연스럽게 둘러 입는 히마티온(Himation)이 대부분으로, 자연스러운 드레이퍼리(Drapery)의 모습을 아름답게 담고 있다.

특히 피불라(Fibula)로 여민 부분 사이로 살짝 보이는 팔의 모습과 끈을 둘러 가슴을 두드러지게 한 모습 등은 인위적인 효과가 아닌 자연스럽게 여성미를 연출하려는 그들만의 미적 감각이라 할 수 있겠다.

고전적이란 전형적인,, 모범적인,, 같은 분류에서 최고급인,, 모방의 가치가 있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고전주의는 아취, 억제, 질서, 명석성을 특징으로 하는 글이나 그림에 있어서의 하나의 풍조를 말하는데 대개 그리스 로마의 양식을 일컫는다.

그리스, 로마의 고전적인 양식은 시대를 넘어서 로마네스크 시대, 르네상스 시대, 18세기 말, 19세기 전반기, 그리고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등장하면서 인간의 심적 안정과 예술적 영감을 주는데 원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고대에 대한 기억이 후대인들의 현실과 시대상황에 따라 다채로운 색채를 보이지만, 그래도 예술 속에서 되살아난 고대의 모습엔 언제나 일종의 낭만이 배어 있다. 고대를 향한 우리의 시선은 늘 그리움과 동경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알마 타데마 역시, 19세기에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싹튼 고대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을 그의 회화에서 잘 그려내었으며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의상 또한 고전시대 그대로 자세하게 표현하여 고전주의에 대한 의미를 다시 조명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